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치료적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개발*

김 정 옥(대구가톨릭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프로그램들의 문제를 보완하여 다문화가족 부부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통합치료적 활동으로 구성된 숙박형 부부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연구대상은 K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11쌍으로 11개 시군으로부터 부부갈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1쌍씩을 추천받았으며 단일사례 실험설계를 하였다. 연구절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회 1박2일의 숙박형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환류 과정을 통해 참여자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통합형 부부프로그램을 설계하였고, 참여자를 다문화가족 부부로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은 2012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2일간 실시되었으며, 6주 후 추후검사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측정도구는 자아존중감(10문항), 의사소통(38문항), 결혼만족도(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19 Program을 사용하여 Cronbach's α , 평균, 표준편차,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은 총점 50.00점 중 프로그램 실시 전 34.00점에서 실시 후 37.86으로 향상되었으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둘째, 의사소통의 부정적 표현은 사전검사의 121.14에서 프로그램 참여 후 109.64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하위요인 중 방어 요인은 6주 후 추후검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어 프로그램 종료 후 부부 간 의사소통에서 방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결혼만족도의 변화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전 73.09에서 82.82로 $p < .001$ 수준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애정적 부부관계는 추후검사에서도 30.36(사후)에서 29.45(추후)로 $p < .01$ 수준에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6주 후 프로그램의 효과가 애정적 부부관계에서는 감소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 부부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부부의 부정적 의사소통의 방식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셋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갈등을 완화하고, 적응을 도우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합한 치료적 프로그램이 유용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러한 접근을 통해 부부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결혼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됨으로써 부부관계가 향상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K도 지역에 한정되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고, 단일사례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